

도내 다중이용시설 안전 '걱정 끝'

전기안전공사, 전북도와 다중이용시설 이동통신망 비상전원 확보 협약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가 다중이용시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전북도 및 국내 주요 통신사들과 손을 맞잡았다.

공사는 28일,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조성완 사장, 정중기 한국전파진흥협회 부회장, 허근만 SKT서부인프라 본부장, 김태균 KT호남네트워크 운용본부장, 정관재 LGU+호남인프라 본부장이 함께한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이동통신망 비상전원 확보를 위한 안전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 협약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병원,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사고나 정전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신장애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실제로 건물 내 화재가 일어나면 통신설비에도 영향을 미쳐 휴대전화로 119에 구호요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또한 정전사고 때도 현재,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들이 상용 전원으로만 연결된 이동통신 중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8일,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조성완 사장, 정중기 한국전파진흥협회 부회장, 허근만 SKT서부인프라 본부장, 김태균 KT호남네트워크 운용본부장, 정관재 LGU+호남인프라 본부장이 함께한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이동통신망 비상전원 확보를 위한 안전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기를 갖추고 있어 전원이 끊기면 통신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PS-LTE 통신을 사용하는 소방대원의 경우, 사고 현장에서 무전기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조성완 사장은 "다중이용시설은 화재사고 시 큰 인명피해가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구호요청을 위한 통신시설 안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계기 전원에 비상발전기를 연결토록 하는 이번 협력 사업이 국가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사고조사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일어난 화재사고 4만 2,338건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화재가 3,400건으로, 전체 사고 대비 점유율은 8%에 불과하지만 사상자는 480명으로 전체 사상자 2,594명 중 18.5%

에 이르고 있다.

공사는 이 같은 상황에 따라, 5G시대 통신시설의 안정적 전원공급을 위해 ▲정전 정보 사전안내 서비스 확대, ▲다중이용시설 건물 내 통신설비 전원의 비상발전기 연계 사업, ▲신축건물 통신설비 전원의 비상발전기 연계 법제화 협력 등의 3대 중점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김윤상 기자

베트남 바이어와 수출 상담·계약 체결

전북도·경진원, 소규모 수출상담회서 100만불 상담

전라북도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28일 남원시 화장품 지원센터에서 제10회 소규모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를 운영해 베트남 바이어와 도내업체의 일대일(1:1) 수출 상담 및 수출 계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는 경쟁력있는 바이어들을 소수정예로

초빙해 수출상담을 추진하는 행사로, 올해 20개사의 바이어를 초청해 도내 기업 76업체와 120건(3,907만불)의 수출상담을 추진해 5건(1,020만불)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킨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는 베트남 하노이에 통상거점지원센터를 두고 꾸준히 도내 업체의 수출증진을 위해 바이어 발굴 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상담회를 위해 화장품 유통 바이어를 발굴해 남원소재 원스킨사와의 수출 계약을 지원했다.

원스킨사는 국내·외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OEM/ODM 제품을 제조한 경험을 토대로 'Belleza Castillo', 'ROROKO' 등 자체 브랜드를 구축하여 꾸준한 마케팅 활동을 벌여온 결과, 이번 상담회를 통해 100만불(5년 간)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도 관계자는 "베트남 통상거점센터를 통해 지사화 및 샘플전시, 바이어 발굴 외에도 도내 업체가 편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차량임대 및 통역까지 토털 서비스를 지원중"이라고 밝히며 "도내업체의 수요가 있는 지역에 통상거점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진원 관계자는 계약 성사 이후에도 해당 업체가 FTA를 활용해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FTA 원산지증명 통합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도내 업체의 수출 증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사항은 경진원 해외시장팀(063-711-204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28일 남원시 화장품 지원센터에서 제10회 소규모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를 운영해 베트남 바이어와 도내업체의 일대일(1:1) 수출 상담 및 수출 계약식을 진행했다.

LX, 지역주민 위한 한방 의료봉사 펼쳐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화)가 전북지역 주민들을 위한 한방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LX는 지난 27일, 비영리법인 햇살마루와 함께 원주군을 방문해 지역주민 25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한방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LX 직원, 한의사,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기초검진, 침술, 부항치료, 주파수 도수치료 등 다양한 의료봉사 서비스를 진행했다.

또한 희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장수·우정사진 촬영'과 마용봉사 등 부대활동도 펼쳐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최창화 사장은 "이번 한방 의료봉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한방 의료봉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청년 고객 'NH1934 패키지' 출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만19세에서 만34세까지의 청년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입출식예금과 적립식예금, 대출, 체크카드 등으로 구성된 'NH1934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입출식예금인 'NH1934우대통장'은 인터넷뱅킹, NH스마트뱅킹, 올원뱅크 등 비대면채널 또는 NH농협은행 오픈뱅킹 서비스로 월 2회 이상 이체하고, 급여이체·자동이체·NH1934체크카드 이용실적 중 하나만 충족하면 전자금융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또한,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일반잔액 100만원까지 최대 3.0%(기본금리 0.1%, 우대금리 2.9%)까지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 효과도 있다. 파킹통장은 여유자금을 주차하듯 잠깐만 맡겨두고 고금리를 제공하지만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적립식예금인 'NH1934월복리적금'은 매일 1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이다. 급여실적

또는 개인사업자계좌 실적, 비대면채널 이체 등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1.5%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특히 농업계고나 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자는 추가로 2.0% 우대금리를 받는다.(최대금리 5.00%, 12개월 가입 10월 25일 기준)

NH1934단비(단골비상금)대출은 NH1934우대통장을 보유하고, NH체크(신용·체크)카드 연간 600만원 이상 이용, 급여이체, 자동이체 3건 이상을 모두 충족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백만원까지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1.2%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 최저 2.73%까지 가능하다.

NH1934체크카드는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전월실적에 상관없이 0.2% 청구할인을 제공하고, 전월실적이 50만원 이상이면 국내에서 일요일에 이용한 금액이 0.1%만큼 추가할인되어 최대 0.3%까지 청구할인된다. SMS 휴대폰 바로알림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김윤상 기자

송천신협, 지역주민 나눔 봉사활동 펼쳐

송천신협(이사장 이종권) 임직원들은 지난 28일 전주 솔빛중에서 열린 '송천1동 동민의 날-주민화합 한마당' 축제 행사에서 외곽과 읍영수를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송천신협은 취약계층 자녀 장학금 전달, 연탄봉사 등 지역사회에서 나눔 문화를 조성하고 어두운 곳에 밝은 햇살을 비추는 다양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에너지 걱정 없는 따뜻한 겨울 만들기'를 주제로 취약계층 가정에 난방·방한용품 전달하는 '신협 온(溫)대상' 나눔 캠페인'을 해마다 펼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 동암고 학생 대상 'JB Dream up' 금융투어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지난 24일 올바른 경제관념 확립을 위해 전주동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JB Dream up 금융투어'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JB Dream up 금융투어'란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이 하는 일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경제교육을 통하여 세계화, 저축 및 용돈·자산 관리 등 다양한 주제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교육은 전주 동암고등학교 1학년 60명을 대상으로 전북은행 영업부와 대여금고, PB 센터, 2층 라운지 등 본점 곳곳을 둘러보고, 19층 연수원에서 영업추진부 여성지원팀 박지은 계장이 '전라북도 향토은행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는 전북은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김영구 이사장은 "도내 청소년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체험 활동의 기회를 열어주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위치알리미 기기 무료보급

신협, 노인·아동 대상 3만2800개 전달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금융소의 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자처해 온 신협이 어부바 위치알리미 기기 무료보급사업을 실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어부바 위치알리미 기기 무료보급사업은 신협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신협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사회적 약자인 노인 및 아동의 실종 사고와 범죄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위치알리미 기기를 무료로 보급하는 포용금융 및 공익 기여활동이다.

이번 사업으로 총 3만2800대의 위치알리미 기기가 무료 보급될 계획이며, 기기를 통해 이용자의 위치를 GPS로 수신하여 가족의 스마트폰 어플(APP)로 전송하고, 긴급호출 기능 및 안심존 기능(설정 지역 범위 이탈 시 알림)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는 28일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신협중앙회관에서 어부바 위치알리미 기기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국 신협임직원 200명이 참석했으며, 공제기획부의 보급사업 취지 설명과 홍보 동영상 상영, 각 지역별 위치알리미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위치알리미 보급사업은 실종사고와 범죄로부터 아동과 노인을 지키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업을 마중물로 삼아 신협의 사회적 역할과 선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서민과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어부바하는 신협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협중앙회는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신협의 인기 캐릭터인 '어부바 폰 어플(APP)'로 전송하고, 긴급호출 기능 및 안심존 기능(설정 지역 범위 이탈 시 알림)을 제공하는 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위치알리미 기기 보급과 관련한 홍보영상도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bu80JlrxSA)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신협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어부바 위치알리미 기기 전달식

일시 | 2019.10.28.(월) 12:00 장소 | 신협중앙회 2층 대강당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예타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이하 농진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3개 부·청이 공동 기획한 것으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아 2021년부터 7년간 총 3,867억 원(국비 3,333, 민자 534) 규모의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기존 스마트팜 R&D가 농업 편의성 제고를 위한 1세대 스마트팜 개발에 집중할 것과 달리, 이번 사업은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의사결정을 통해 저투입, 고효율의 안정적 농축산물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팜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스마트팜 기술 고도화 및 현장 실증, 자동화된 지능형 농장을 구현하기 위한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등 2개 내역 사업을 구성해 연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농진청·과기정통부는 3개 부·청 간 긴밀한 협조 하에 사업 추진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3개 부·청은 동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사업단 설립 절차에 조속히 착수하여 사업단에 범부처 스마트팜 R&D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동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연구 데이터를 저장·분석·공유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R&D 빅데이터 플랫폼을 내년에 조기 구축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마카오·홍콩 하늘길 열어나간다

이스타항공, 인천-마카오·제주-마카오·홍콩 신규취항

이스타항공이 지난 27일 인천-마카오, 제주-마카오, 제주-홍콩 노선에 신규취항하며 첫 운항에 나섰다.

이스타항공은 이날 임직원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과 제주국제공항에서 신규노선의 첫 운항을 축하하는 신규취항식을 가졌다.

인천-마카오는 주 7회, 제주-마카오는 주 4회, 제주-홍콩은 주 3회 운항한다.

특히 제주-마카오 노선의 경우 이스타항공 단독노선으로 제주국제공항의 박지은 계장이 '전라북도 향토은행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는 전북은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김영구 이사장은 "도내 청소년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체험 활동의 기회를 열어주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간 여행이 가능해 항공편의가 확대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번 홍콩, 마카오 노선을 포함해 중국, 대만 등 다양한 노선 신규취항으로 노선 다변화를 본격화 하고 있다"며 "기존 수도권 공항뿐만 아니라 청주, 제주, 부산 등 지방공항 노선 신설로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어제(28일)까지 레드페스타 사티아벤트를 마감하고 오는 오후 2시부터 본격적인 레드페스타 이벤트에 돌입한다.

최장기간 최대 특가 이벤트인 '레드페스타(RED FESTA)'에는 신규노선인 인천-마카오, 제주-마카오, 제주-홍콩 노선도 포함된다.

/김윤상 기자